그들만의 리그? 그냥 놔두자

(예레미야 39:1~18)

4.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 담 샛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5.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립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6. 바벨론의 왕이 립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7.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8.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9.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10.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 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그들만의 리그? 그냥 놔두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냥 놔두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서 나머지 구절을 살펴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을 시켜 예레미야를 선대하여 석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주도록 시드기야 왕을 설득했던 구스 출신의 내시였던 에벳멜렉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에벳멜렉에 대한 예언은 시기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있던 도중 받은 것이었으나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예루살렘의 함락과 자신의 석방 뒤에 놓음으로써 특별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그들만의 리그? 그냥 놔두자'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권이나 승리가 정해져있는 특정 집단이나 팀에게만 돌아가게 되는 경우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좀 더 보편적인 사회적 차원에서는 보통 사람들과 동떨어진 특권적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폐쇄적 체제를 이루고 살아가는 계층들을 일컫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예를 들어보면 유럽의 프로축구가 그들만의 리그로 유명합니다.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는 아주 가끔 이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즌은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로 마감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분데스리가도 거의 매번 바이에른뮌헨이 우승을 하고, 프랑스의 프로리그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피아'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은퇴를 할 때에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하면서 요직을 독점하여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들이 정부기관에 청탁을 하면 현직의 후배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또 이들도 은퇴할 때가 되면 선배들이 카르텔을 형성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국가의 기관을 사사로운 욕심의 성취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정말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30~40평의 아파트가 80~100억씩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가격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계와 정계의 유착과 이들을 돕는 대형 로펌들의 관계 또한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외부 세력으로부터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보호하고 방어해나갑니다. 이러한 그들만의 리그를 바라보는 소외계층은 항상 들러리처럼 여겨집니다.
스페인 축구리그에 속한 다른 팀들은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돋보이게 하는 들러리처럼 보입니다. 재계와 정계가 유착하고 대형 로펌들을 이용해 법 위에 군림하면서, 거기서 나온 부스러기를 선심 쓰듯 뿌리는 모습이 들러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럴 때 소외계층은 분노하거나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소외계층에 속해있을지라도 이렇게 분노하거나 부러워하는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만의 리그에 속해서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폐쇄성을 강화하는 모습 또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부유한 계층에 대해 특별히 적개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부자나 권력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적인 차원에서 그들만의 리그에 속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이거나 권력자라도 이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앙인으로써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이 문제에 연관되면 신앙인으로써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그들만의 리그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인간 집단입니다. 비유하자면 방사능이 유출된 체르노빌 지역의 중심부와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고농도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처럼, 영성을 죽이는 강력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염두에 두고 보자면 그들만의 리그는 멸망으로 가는 단체여행객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상위 1%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밖에서 볼 때에 그들만의 리그로 보이는 유착과 카르텔은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 가치를 독점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폐쇄성은 멸망으로 가는 단체여행권을 구입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조건이 됩니다.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다른 계층과 구분되는 폐쇄성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격리시키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만의 리그 안에 들어서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그들만의 리그에 속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능한 속히 탈퇴하는 것이 상책이고, 속하지 않았다면 무관심으로 일관해야할 것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비판하는 것도 부러워하는 것도 과분하게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전혀 마음을 쓸 만한 가치가 없는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BC.586년에 시드기야의 통치는 11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41년간을 줄기차게 반복해오던 예레미야의 멸망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유다 백성들의 진심어린 회개가 있었다면 멸망이 유보되었거나 변경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셨던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의 진심어린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모습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나타납니다. 바벨론에 정복되어서 완전히 목숨을 잃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멸망의 그룹이 있고, 바벨론에게 정복되었음에도 목숨을 유지하고 심지어 새로운 토지를 부여받으며 새 삶을 시작할 기회를 부여받는 그룹이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볼 때에 우리가 애국심이나 매국심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독립 운동가의 마음이나 나라를 팔아먹는 앞잡이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볼 일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에벳멜렉에 대한 예언을 자기를 구덩이에서 건져 줄 당시에 쓰지 않고 유다의 멸망 뒤로 가져온 이유를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바벨론의 정복 앞에서 구원의 그룹과 멸망의 그룹으로 나뉘는 기준은 애국심이라는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거나 멸망을 당하는 두 그룹의 차이를 통해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시드기야 왕과 왕자들과 고관들과 백성의 유력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이루어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멸망의 상황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그들만의 리그 밖에 있던 소외계층이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41년이나 유다 나라 전체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구스 출신의 내시 에벳멜렉 또한 유다 민족에 섞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스는 현재의 에티오피아입니다. 따라서 에벳멜렉이 흑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나라 내에서 인종적인 구분도 있었을 것이며 심지어 에벳멜렉은 고관들이 싫어하던 예레미야를 감쌌던 사람입니다. 그 삶이 외톨이었음을 어렵잖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 두고 그 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고 하였습니다. 빈민들 역시 주류계층의 그들만의 리그와는 관계없는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오히려 땅과 밭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두 그룹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부자나 특권층에게 편견이나 적개심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멸망으로 구분되어지는 조건을 갖추기 쉬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반면에 선민 사회 안에서 소외되거나 구분되던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 또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구원의 가장 큰 조건으로 여겨지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 한 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두 그룹의 비교를 통해 믿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믿음을 비교하는 말은 없지만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해 하나님을 유일한 기쁨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대상을 통해 기쁨을 느끼려는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위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위선을 주된 표적으로 삼아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믿음은 기쁨의 이유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다른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신은 곧 내게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 귀신을 쫓고 기뻐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속하여 폐쇄적으로 세상 가치를 독점해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멸망에 처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가치들로 기뻐하려는 성향이 너무도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자는 돈을 버는 기쁨도 알

고 돈을 쓰는 기쁨도 압니다. 이 기쁨이 너무도 강력해서 하나님을 벌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옮겨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이 기쁨이 된다는 믿음이 강력했기에 천국에 가지 못했던 것이고, 나사로는 거지로써 돈에 대해 희망을 둘 수 없었기에 하나님에게서만 기쁨을 찾기를 원했고 그 결과 천국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모든 말씀이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곧 기쁨에 대한 이유이자 확신입니다.

요즘 명성교회가 세습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사회적으로 고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극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하는 목사님들과 신학대학 교수님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측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신앙의 근본으로부터 바라보면 어떨까요?
원로 목사님이 아들 목사에게 초대형교회의 목회를 물려주는 것을 영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에덴 밖으로 쫓겨난 삶이 저주의 삶입니다. 에덴동산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저주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놓고 보면 원로 목사님이 아들 목사에게 목회를 물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기뻐하는 것조차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초대형교회의 목회를 물려주려한 이유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저주받은 삶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보자면 목회를 세습한 것이 아니라 저주의 상태를 세습해버린 것입니다.
목회로 기뻐하는 것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본래라면 이것부터 문제시되어야 했습니다. '왜 내가 목회로 기뻐하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써 목회를 버리자. 나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해야 한다.'라는 회개와 반성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도 반성도 없이 목회를 기쁨으로 여기는 저주의 상태를 아들에게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드기야 왕이 속한 그룹과도 같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대형교회를 경제나 권력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것은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받던 저주가 아들 목사에게까지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습을 반대하던 목사님들이나 교수님과 신학생들이 정말로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반대했습니까? 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에서 반대한 것입니다.

명성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시기심과 질투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계에서도 이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경제나 권력측면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가지게 된 하나님에 대해 시기심이 났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스스로 개척한 대형교회를 전혀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이 아들이 교회를 물려받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로 목사님이 이루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시골 교회 혹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되었다면 저는 시기심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저 분을 통해 대형교회를 이룬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셨는가?'라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또 그 아들 목사님에 대해서도 '교회를 떠나라는 아버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일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만을 기쁨의 이유로 믿고 있었을까?'라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소란과 아우성을 물리치면서까지 굳이 대형교회를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었으니 오히려 가엾은 일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의 특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치에 매여 있고 세상을 기쁨의 이유로 알며 살아가는 저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저주가 외부로 새어 나갈까 다 막아놓고 저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리그의 특징입니다.
얼마 전에 강릉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학생들이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보일러 설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만 창문이 조금만 열려있었어도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도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은 폐쇄된 상황으로 인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불리는 그룹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치로 기뻐하려는 저주를 폐쇄적 장벽 안에서 유지해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판하는 것조차 아까운 상태입니다. 차라리 관심을 갖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꼭 세습 문제가 아니더라도 교단 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원로 목사님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다양합니다. 경제력을 이용해서 가족의 신분상승을 유도합니다. 교회의 재정으로 자녀들의 회사 돈을 대주고, 교단 내에서 인사이동을 강제하며 카르텔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와 같은 그룹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의 유다 사회에서 소외되어 계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같이 그들만의 리그에 속하지도 못하셨고 로마 제국의 그들만의 리그

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신도 변두리 중의 변두리였던 나사렛이었습니다. 다만 그 변두리에서 하나님께 몰두하셨고 그 결과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세상을 향한 강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작게는 300년 뒤에 로마 제국 전체가 빨려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히브리 유랑민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들만의 리그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 결과가 아닙니다.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농도가 진해짐으로써 일어난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애굽 전체가 빨려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로써 한때 그들만의 리그에 속해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인해 쫓겨나서 십 년을 광야와 황무지를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울이 바로 앞에 있을 때에도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농도가 계속해서 깊어지자 결국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안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지금 현존하는 인간사회 안에서의 그들만의 리그로 불리는 상부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폐쇄적으로 이루어진 그들만의 리그는 강력한 방사능이 누출되는 체르노빌 중심부와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왜곡시키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미 그들은 그 자체로써 저주와 죄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항상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되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원로 목사님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어도 그것을 분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성공했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러워하는 관점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할지라도 개척해서 십 년이 지났는데도 교인이 얼마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농도가 짙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는 내가 속한 사회의 중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온 피조세계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께 몰두하고 하나님만을 기쁨의 이유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쁨으로 삼으려는 유전 죄의 기질을 계속해서 죽여가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농도를 짙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빨려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자체만으로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으니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사람이나 단체나 심지어 나라까지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빨려 들

어올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기쁨으로 순교하는 일도 생겨날 것입니다. 문제는 결과가 아닌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들만의 리그를 깨뜨리겠다고 젊은 주인공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저항이나 부러워함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불쌍할 정도로 저주의 기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못 보기에 그들을 은연중에 부러워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이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거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세상 가치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졌는가를 측정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럽거나 화가 나거나 비판이 나온다면 아직 온전히 세상 가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는 상태가 아님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계속 죽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듣는 중에도, 오히려 가엾고 불쌍하게 여겨진다면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는 복음의 은총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어떻게 하든지 세상 것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서 기쁘고 만족하고자 하는 유전 죄의 기질을 날마다 묶어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이 날마다 커지고 짙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